

신문 사설 요청표현의 한중 번역 변이 고찰

김혜림
(한국외대)

1. 서론

신문 사설은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일반 대중이나 관련 당사자에게 주장하는 글로서, 상대방에게 주장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이종철 2005: 223-224).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행위로 요청을 정의한다면, 요청표현이란 이런 요청의 의도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신문이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로 신문사의 견해를 전달하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언어기제이다(신진원 2014: 95-96). 신문 사설과 같은 설득적 글쓰기에서 저자의 ‘독자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audience)’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된다(Thompson, 2001). 신문 사설 저자는 텍스트가 작용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독자와의 이상적인 거리를 면밀히 측정하여 그 표현들을 신중히 고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소통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신진원 2014: 96).

문화권에 따라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및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Hinds(2001: 65-67)는 영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이 저자에게 있는(writer-responsibility)’ 언어인 반면 한국어와 중국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이 독자에게 있는(reader-responsible)’ 언어라고 하였다. 독자와의 거리를 보여주는 요청의 직접성 정도도 문화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영미권에 비해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김용진 1999; Gao 2009; 姚舜霞 & 邱天河 2003).

번역문은 도착어 문화권에서 원문과 무관하게 하나의 독자적인 텍스트로서 독자들에게 수용되므로 번역문 독자를 고려하여 다시쓰기가 이루어진다(김혜영 2012: 67). 번역 시 명제적 내용의 전달 태도나 저자와 독자의 관계유지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번역문과 비번역문,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큰 영어와 한국어 언어 쌍 번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김현아 2009; 박미준 2015; 신지원 2012, 2014).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요청 시 간접적인 요청표현보다 직접적인 요청표현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만(김정은 2006: 180-181),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예비적 조건 언급’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최수진 2008: 168).

본 연구는 신문 사설 한중 번역을 분석하여 전달 태도 및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청표현 번역 시 두드러지는 양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신문 사설의 요청표현

화자가 원하는 일을 청자에게 하도록 하는 언어 행위를 지시화행(Directives) 또는 요청화행(Requestives)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충고하기, 간청하기, 명령하기, 요청하기, 제안하기 등이 포함된다(장석진, 1987: 177-89). 이중 신문 사설의 주장 부분에는 ‘충고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등이 수행된

다고 볼 수 있다(이종철 2005: 224). 요청화행 관련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이룬 연구로는 블룸 쿨카, 하우스와 캐스퍼(Blum-Kulka, House & Kasper 1989)를 들 수 있다. 블룸 쿨카, 하우스와 캐스퍼(1989)는 요청화행과 사과화행의 문화, 언어 간 다양한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요청화행 전략을 9가지로 나누고 직접성의 정도를 가장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단계(the most direct explicit level), 관례적으로 간접적인 단계(the conventionally indirect level), 비관례적으로 간접적인 단계(the nonconventionally indirect level)의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이종철(2005: 225)은 신문 사설에 나타나는 요청표현을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직접성이 강한 표현과 약한 표현으로 구분하고, 맥락의 부재상태에서 해당 표현만으로 요청의 의미가 전달되는가를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신진원(2014: 98-99)은 이종철(2005)의 분류가 영어 요청행위의 직접성과 간접성을 논한 블룸 쿨카, 하우스와 캐스퍼(1989)의 분류를 보다 일반화한 것으로, 담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세한 분류를 피할 수 있는 대략적인 구분으로 평가하며 선행 연구를 참고해 신문 사설의 요청표현을 직접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중국어 요청표현을 분류한 선행연구(Gao 2009; 姚舜霞 & 邱天河 2003)와 중국어와 한국어의 요청표현을 대조한 선행연구(김정은 2006; 최수진 2008)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신문 사설 요청표현의 직접성 분류

구 분		형 태	
		한국어	중국어
직접성이 강한 범주	명령문	-하라	서술형, 명령형(请), 把자문
	수행문	-하기를 촉구한다	命令, 让, 叫
	완화된 수행문	-하기를 당부한다	要求, 请求, 求, 恳求
	요망한다		
직접성이 약한 범주	당위 진술	-어야 한다/-어서는 안된다	该/ 应该, 必须, 不得不, 得
	소망 진술	-하기를 바란다	希望, 期待
	제안 진술	-하는게 어떨까?	怎么样?
	수사의문문	-안 할 것인가?	能吗?
암시적인 범주	강한 암시	-할 때이다 -하는 것이 옳다	时候到了, 需要, 义务, 重要

		-할 필요가 있다 - 의무다/ -할 일이다.	
	약한 압시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다	如果 등

요청표현의 직접성은 문장의 서법과 직결된다(이종철 2005: 225). 예를 들어, ‘-하라’ 명령법, ‘-하자’ 등의 청유법 등이 사용된 표현에서 요청의 직접성은 비교적 강하게 드러난다(이종철 2005: 228). 중국어에서는 서술형, 명령형, 把자문 등이 직접성이 강한 요청표현에 해당된다. 평서법 문장은 ‘요망한다’ 등과 같은 수행 동사가 쓰인 경우에만 직접 요청 화행을 수행하나, ‘-어야 한다’ 등 당위 표시 형태의 평서법 문장은 관례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므로 직접 요청화행은 아니지만 직접성이 강한 요청 화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종철 2005: 225-226). 직접성이 강한 명령법, 당위 진술, 요청 수행 동사, 소망진술, 청유법은 맥락 부재 상태에서도 분명하게 요청의 의미를 전달한다. 중국어에서도 ‘命令, 让, 叫’ 등의 수행문, ‘要求, 请求, 求, 恳求’ 등의 완화된 수행문, 당위표현 ‘该, 应该, 必须, 不得不, 得’ 등과 소망표현 ‘希望, 期待’ 등이 사용된 평서법 문장은 강한 요청화행을 전달한다.

반면, ‘옳다. 필요가 있다/필요하다. 중요하다, -때이다, 의무다’ 등은 사설의 필자가 어떤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 가치 판단을 진술하여 상대방이 그 행동을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화행을 함축한다. 이들 표현은 전달 의미상 그 다음에 당위 표시 형태가 나타나는 표현이 쓰여도 자연스러운 것들이어서 요청의 직접성이 약하다(이종철 2005: 229, 236). 또한, ‘-하면 -할 것이다’ 등 조건문 형식도 요청의 내용을 조건으로 제시하므로 요청의 직접성이 약하다(이종철 2005: 240).

신문 사설의 요청표현은 제목과 본문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띤다. 신문 사설 제목은 정보를 요약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켜 그 기사를 읽게 하는 관심 유도 기능을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이종철 2005: 224; 정여훈 2006: 90-91). 한국어 신문 사설에서 기본적으로 제목은 명령법, 청유법이 본문에 비해 많이 사용되고, 요청 수행 동사와 소망진술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이종철 2005: 229). 반면, 본문에서는 명

령법, 청유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평서법이 주로 사용되며, 당위 표시 형태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이종철 2005: 233, 235).

2.2. 선행연구

국내 번역 연구 중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과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다음 몇 가지를 볼 수 있다.

김현아(2011)는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를 분석하여 순수 영어 텍스트와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텍스트의 메타담화(metadiscourse)를 비교하였다. 메타담화란 독자의 텍스트 이해와 해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을 평가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저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언어적 장치를 말하며,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분석 결과, 번역문과 비번역문은 텍스트 생산자의 판단을 유보하는 표현이나 수행성을 완화시키는 헤지(hedge) 표현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비번역문은 해당 기업의 향후 계획이나 전망에 대한 언급을 할 때 헤지 표현이 사용되는 반면, 번역문은 헤지 표현의 사용이 매우 드물었으며, 직접적으로 강하게 언급하는 한국어 원문의 관습이 반영되었다.

신진원(2012)은 뉴스위크(Newsweek)지에서 추출한 영어 기사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을 대상으로 헤지 표현 번역을 분석하였다. 1) 명제적 내용의 차원, 2) 저자의 명제에 대한 책무, 3)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의 세 가지 측면에서 헤지 번역을 분석한 결과, 영한 번역문에서 헤지 표현이 생략되거나 보다 객관적 의미를 담는 쪽으로 변환되며 영어 원문보다 단언적인 태도로 바뀌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박미준(2015)은 한국어 신문사설, 월스트리트 저널 영어 사설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을 대상으로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의 ‘참여(engagement)’를 분석하였다. 평가어 중 참여는 화자나 필자가 제시하는 정보나 취하는 입장에 대한 독자의 예상되는 대응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방식과 관련된 언어 자원의 사용을 말한다. 분석 결과, 영어에 비해 한국어 사설 텍스트에서는 대화적 확장, 특히 용인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시 전반적으로 대화의 확장보다 축소를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신진원(2014)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신문사설 한국어 원문과 영

어 번역문을 각 20개씩 총 6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요청표현 번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보다 직접성이 더 약할 것이라고 논의되는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 직접성이 강한 표현으로의 변이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 신문 사설 요청표현의 번역은 화용론적 등가 차원보다는 메시지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는 번역전략이 번역에서 우선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기 선행연구를 보면, 번역 시 메시지 전달태도 또는 독자와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큰 영어와 한국어 언어 쌍 번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시 전반적으로 더 단언적이고 직접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으나(박미준 2015; 신진원 2012),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 시 메시지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의사소통 방식 차이에 따른 전환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신진원 2014).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국내 언론사 중 온라인판 중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한중 번역 사설 총 1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이 중 조선일보 사설이 24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사설이 각 38개씩 추출되었다. 따라서 분석자료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 한국어 원문(source text, 이하 ST) 100개와 중국어 번역문(target text, 이하 TT) 100개이다. 매일경제도 온라인판 중국어 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설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사설 작성 시기는 2014년 1월-2015년 12월로 통일하였다.

요청표현 번역 분석을 위해 추출한 신문사설의 한국어 ST와 중국어 TT를 단어, 절 또 문장 차원에서 연결시켜주는 정렬(alignment) 작업을 진행하였다.

언어 체계 차이로 ST의 한 문장이 TT에서 두 세 문장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반대로 ST의 두 세 문장이 TT에서 한 문장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의 ST와 TT를 대조한 결과, ST와 TT의 문단이 대응을 이루고 있었다. MS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단 단위로 정렬 작업을 진행한 후, 처리 결과를 복사하여 메모장에 옮기고 유니코드(unicode) 방식으로 인코딩된 텍스트 파일(*.txt)로 저장하였다.

3.2. 분석방법

신문 사설의 제목과 본문은 사용되는 요청표현 유형에 차이가 있다. 한영 신문사설 번역을 분석한 신진원(2014)의 연구에서도 제목과 본문의 요청표현 번역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신문 사설의 제목과 본문을 나누어 요청표현 번역 변이를 관찰하였다.

요청표현 번역 변이는 한영 신문 사설 번역을 분석한 신진원(2014)의 분류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 첫째,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변이된 경우
- 둘째, 직접성이 약한 쪽으로 변이된 경우
- 셋째, 직접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
- 넷째, 직접성의 변화가 있으나 미미하여 무표적인 경우

직접성 변이 분류는 <표 1>을 기준으로 한다. 즉, ST의 ‘직접성이 약한 범주’나 ‘암시적인 범주’ 표현이 TT에서 ‘직접성이 강한 범주’로 전환되었을 경우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변이가 되었다고 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직접성이 약한 쪽으로 변이되었다고 본다. <표 1> 분류 상 ST와 TT가 같은 유형의 요청표현이 쓰인 경우는 직접성이 변화가 없는 경우로 분류한다. 번역 시 다른 유형으로 변이가 일어났지만 동일한 범주에 속하거나 강한 암시나 약한 암시 간 전환이 일어나 그 변화가 미미한 경우는 무표적인 경우로 분류한다.

신문 사설 제목은 문장의 서술어가 생략된 비종결형 표현이 많다. 비종결형 제목은 ‘우리만 3월에 새 학년..9월 새 학기제로 가야’와 같이 생략된 서술어가 ‘-어야 한다’로 쉽게 유추되는 것도 있지만, 서술어가 맥락상 추정하기 모호한

경우도 많다. 서술어가 쉽게 유추되는 경우 유추된 서술어에 맞추어 번역의 직접성 변이를 분류하며, 생략된 서술어가 모호할 경우 무표적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각 변이 유형의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요청표현의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변이된 경우이다.

ST의 강한 암시적 표현이 TT에서 당위진술로 변경되며 직접성이 강화되었다.

ST: 對中수출 감소, 중국시장 우습게 볼 때 지났다

TT: 对中出口减少 应从自身找原因

(對中수출 감소, 스스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 2014.6.3.)

상기 예문에서 ST의 ‘-때가 지나다’는 필자가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며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암시적 표현이다. 이는 TT에서 ‘-어야 한다’의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应(-해야 한다)’으로 번역되며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다음은 요청표현의 직접성이 약한 쪽으로 변이된 경우이다.

ST의 명령문이 TT에서 당위진술로 변경되며 직접성이 약화되었다.

ST: 성완중 자살 검찰은 흐트러진 자원비리 수사 재정비하라

TT: 成完钟自杀 检方 应该整顿松散的资源案调查

(성완중 자살 검찰은 흐트러진 자원비리 수사를 재정비해야 한다)

(동아일보 2015.4.10.)

상기 예문에서 ST는 ‘-하라’의 명령문을 사용하여 사설의 주장을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TT는 이를 당위진술 ‘应该(-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요청표현의 직접성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직접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이다.

ST: 박대통령, 북일에 제외만 말고 호응 이끌어내라

TT: 朴槿惠总统对朝鲜不要只停留在提议, 请带动对方的呼应

(동아일보 2014.8.16.)

ST: 내치든 외교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혜와 열의가 필요하다.

TT: 无论内治还是外交上, 实现这些目的需要的是朴槿惠总统的智慧与热忱。(동아일보 2014.8.16.)

ST: 우리만 3월에 새 학년..9월 새 학기제로 가야

TT: 只有韩国实施3月份开学制度, 现应改为9月份开学
(동아일보 2014.12.23.)

상기 예문에서 ‘이끌어내라’의 명령문은 TT에서도 동일하게 ‘请’을 사용한 명령문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ST의 ‘필요하다’ 역시 TT에서 동일하게 ‘需要的是(필요한 것은)’로 번역되며 요청표현의 직접성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마지막 예문에서 ST는 비종결형 제목이나, 생략된 서술어가 ‘-어야 한다’의 당위표현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TT에서 이는 동일하게 당위표현 ‘应(-해야 한다)’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무표적인 경우이다.

ST: 사이버 위협,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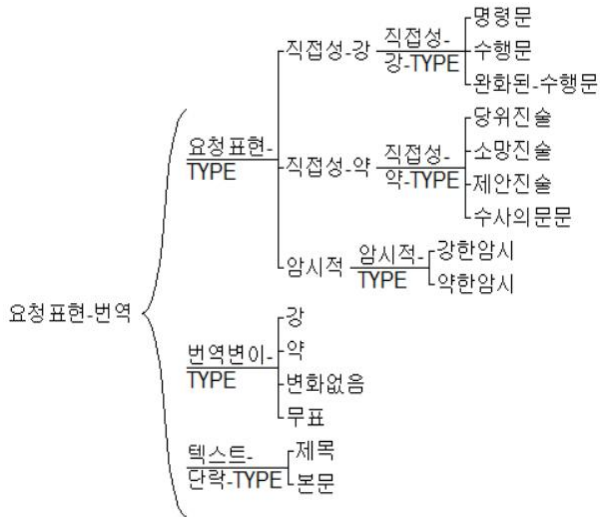
TT: 对付网络威胁应积极寻求国际合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 공조해야 한다)
(중앙일보 2014.12.22)

상기 예문에서 ST는 비종결형 제목이다. 생략된 서술어는 ‘-하라’의 명령문이 될 수도 있고 ‘-해야 한다’의 당위진술이나 ‘-하자’의 제안진술 등이 올 수 있어 모호하다. TT는 이를 ‘应(-해야 한다)’을 사용한 당위진술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ST 요청표현 분류가 쉽지 않을 경우 무표적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요청표현의 변이 분석은 UAM Corpus Tool을 사용하여 기본 분류도표(scheme)를 만들고 각 유형의 빈도를 집계하였다. 도출된 차이를 유의수준 5%에서 R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로그-라이클리후드 검정(Log-Likelihood test)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각 변이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유형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분류도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분석 분류도표(scheme)



4. 분석결과

4.1. 제목 요청표현 번역

총 100개 신문 사설 제목을 검토한 결과 58개 제목에서 요청표현이 사용되었다. 번역 변이를 유형 별로 나누어 빈도를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제목 요청표현 번역변이 빈도

구분	강	약	변화없음	무표	합계
빈도	12	6	35	5	58
백분율	21	10	60	9	100

분석 결과, ST와 TT의 요청표현 직접성 변화가 없는 경우가 총 58개 중 35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변이된 경우가 12개로 많았으며, 직접성이 약한 쪽으로 변이된 경우와 무표적인 경우는 각각 6개와 5개로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변이된 빈도는 약

한 쪽으로 변이된 빈도보다 많았으나, 통계 검정 결과 p-value = 0.1208427 ($p > 0.05$, $G^2 = 2.406365$, d.f.=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제목 요청표현 번역이 특별히 직접성이 강하거나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제목 번역에서 요청표현의 직접성에 변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변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표 3>과 같은 유형이 관찰되었다.

<표 3> 제목 요청표현 번역변이 유형

구분	변이 유형	빈도
강	강한 암시 → 당위 진술	9
	당위 진술 → 명령문	2
	제안 진술 → 명령문	1
소 계		12
약	명령문 → 당위 진술	4
	명령문 → 강한 암시	1
	당위 진술 → 강한 암시	1
소 계		6
무표	제안 진술 → 당위 진술	2
	비종결형	3
소계		5

먼저 직접성이 보다 강한 쪽으로의 변이는 ‘-할 때’, ‘-할 때가 됐다/지났다’, ‘피할 수 없다’, ‘급하다’ 등의 강한 암시적 표현이 당위진술로 변경된 경우가 9개로 가장 많았다.

- (1) ST: 갈수록 심상치 않은 '중국發 태풍' 비상대책 준비할 때
 TT: 越不寻常的“中国台风”要树立紧急对策
 (갈수록 심상치 않은 '중국發 태풍'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선일보 2015.8.24.)
- (2) ST: 40년 된 防衛산업, 밑바닥부터 뜯어고칠 때 됐다

TT: 40年防伪产业现在要进行全面改革
(40년 된 防衛산업, 지금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조선일보 2015.1.7.)

예문(1)과 (2)에서 ST는 ‘-할 때’, ‘-할 때가 됐다’를 사용하여 어떤 행동에 대한 요청을 긍정적 가치 판단이나 객관적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타나내고 있다. TT는 이를 보다 직접적인 당위 표현 ‘要(-해야 한다)’로 변경하였다.

또 다른 유형에는 당위진술과 제안진술이 직접성이 가장 강한 명령문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었다.

(3) ST: 제주에 몰리는 중국 자본, 옥석을 가려야
TT: 严格甄选中国涌入济州资本
(제주에 몰리는 중국 자본을 엄격하게 선별하라)
(중앙일보 2014.9.23.)

(4) ST: 정주영 같은 창업가 10만 명만 키우자
TT: 培养10万现代集团郑周永一样的创业家
(현대그룹 정주영 같은 창업가를 10만 명 양성하라)
(중앙일보 2015.3.12.)

예문(3)의 ST는 비종결형 제목이나 생략된 서술어가 ‘-어야 한다’의 당위 표현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예문(4)의 ST는 청유법을 사용한 제안 진술이다. 예문(3)과 (4)는 TT에서 각각 ‘甄选(선별하라)’ ‘培养(양성하라)’의 명령 형으로 번역되어 보다 직접성이 강화되었다.

직접성이 보다 약한 쪽으로의 변이는 명령문이 당위진술로 변경된 경우가 총 4개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5) ST: 여야, 김영란법 통과시켜 관피아 척결에 호응하라
TT: 朝野应该通过“金永兰法”，呼应“铲除官员黑帮”
(여야는 김영란법 통과시켜 관피아 척결에 호응해야 한다)
(동아일보 2014.5.21.)

예문(5)에서 ST의 ‘호응하라’의 명령문은 TT에서 당위 표현 ‘应该(-해야 한다)’로 번역되며 직접성이 약화되었다.

또 다른 유형으로 명령문과 당위진술이 강한 암시로 변경된 경우가 각각 1개씩 관찰되었다.

(6) ST: 전문가와 곁도는 컨트롤 타워, 메르스 대장 임명하라

TT: 专家和空转的指挥中心, 需尽快任命“MARS战争统帅”

(전문가와 곁도는 컨트롤 타워, 메르스 대장을 조속히 임명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2015.6.9.)

(7) ST: 그래도 북한 아이들과 주민들은 먹여야 한다.

TT: 让北韩人民吃饱饭是 当务之急

(북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조선일보 2014.2.7)

예문(6)에서 ST의 ‘임명하라’의 명령문은 TT에서 강한 암시적 표현 ‘需(필요하다)’로 변경되었으며, 예문(7)에서 ‘먹어야 한다’의 당위진술 역시 TT에서 강한 암시적 표현인 ‘当务之急(급선무)’로 번역되며 직접성이 약화되었다.

무표적 변이는 동일하게 직접성이 약한 범주에 속하는 제안진술이 당위진술로 변경된 경우가 2개, 비종결형 제목으로 생략된 서술어가 모호한 경우가 3개 관찰되었다.

(6) ST: 5·24 조치는 제재 아닌 자해 ... 이젠 매듭짓자

TT: 5·24措施: 不是制裁而是自残 现在 该做个了结

(5·24 조치는 제재 아닌 자해 ... 이젠 매듭지어야 한다)

(중앙일보 2014.10.14.)

예문(6)에서 ST는 청유법의 제안진술이다. TT는 이를 당위 표현 ‘该(-해야 한다)’로 변경하였다. 요청표현 유형은 변화되었으나 직접성의 강도는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4.2. 본문 요청표현 번역

본문 분석 결과 총 284개의 요청표현이 관찰되었다. 번역 변이를 유형 별로 나누어 빈도를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본문 요청표현 번역변이 빈도

구분	강	약	변화없음	무표	합계
빈도	23	12	248	1	284
백분율	8.1	4.2	87.3	0.4	100

본문 번역 역시 제목 번역과 마찬가지로 ST와 TT의 요청표현 직접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총 284개 중 24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본문 번역에서도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변이된 경우가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변이된 빈도(23개)는 약한 쪽으로 변이된 빈도(12개)보다 많았으며, 통계 검정 결과 p-value가 0.05301440 ($0.05 < p < 0.1$ $G^2=3.743465$, $d.f.=1$)으로 유의수준 5%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 검정 시 유의수준을 보통 10%, 5%, 1%로 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기 빈도 차이는 유의수준 10%에서는 유의미한 수치이므로 미미하지만 본문 요청표현 번역은 직접성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문 번역에서 요청표현의 변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표 5〉 본문 요청표현 번역변이 유형

구분	변이 유형	빈도
강	강한 암시 → 당위 진술	21
	약한 암시 → 당위 진술	2
소 계		23
약	당위 진술 → 강한 암시	11
	제안 진술 → 약한 암시	1
소 계		12
무표	소망 진술 → 당위 진술	1

소 계	1
-----	---

먼저, 본문에서 직접성이 보다 강한 쪽으로의 변이는 모두 TT에서 당위 진술로 변경되며 나타났다. 당위진술은 신문 사설 본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다(이종철 2005: 235). 이 중 ‘필요가 있다’, ‘시급하다’,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옳지 않다’, ‘-할 때이다’ 등 ST의 강한 암시 표현이 TT에서 ‘要, 应, 应该, 必须’의 당위진술로 변경된 경우가 총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8) ST: 한 손에는 국익이란 잣대를, 다른 손에는 원칙과 명분이란 저울을 들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격랑(激浪)을 헤쳐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TT: 韩国应该一手拿着所谓国家利益的尺, 一手拿着所谓原则和名义的称, 冷静、坚决地乘风破浪。

(한국은 한 손에는 국익이란 잣대를, 다른 손에는 원칙과 명분이란 저울을 들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격랑(激浪)을 헤쳐 나가야한다)

(조선일보 2014.9.1.)

예문(8)에서 ST는 ‘필요한 시점이다’로 필자의 긍정적 가치 판단을 진술하는 암시적 요청표현을 사용하였다. TT는 이를 당위진술 ‘应该(-해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요청표현의 직접성이 강화되었다.

또 다른 유형에는 직접성이 가장 약한 암시 표현이 당위진술로 변경된 경우가 있었다.

(9) ST: 그러나 그렇게라도 북한 주민들과 아이들이 허기를 채우고 남쪽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을 가슴속에 담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TT: 但即便如此也要让北韩人民和孩子们填饱肚子, 让他们感受到南方吹来的温暖之风, 这样韩国会得到更多。

(그러나 그렇게라도 북한 주민들과 아이들이 허기를 채우고 남쪽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을 가슴속에 담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조선일보 2014.2.7)

예문(9)에서 ST는 ‘-다면’의 조건문을 사용하여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TT는 이를 당위 표현 ‘(-해야 한다)’로 변경하였다.

본문에서 직접성이 보다 약한 쪽으로의 변이는 ST의 당위진술이 TT에서 강한 암시 표현으로 변경된 경우가 11개로 가장 많았다.

(10) ST: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는 ‘셀 코리아 (Sell Korea)’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의 깊게 지켜보야 한다.

TT: 外国投资者之间抛售韩国股票出场的“Sell Korea”气氛正在抬头. 这一点值得韩国密切注意.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는 ‘셀 코리아 (Sell Korea)’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 점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2015.8.24)

(11) ST: 최근 한미약품이 5조원대 당뇨병 치료제 수출을 성사시킨 것이나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수립한 것 같은 시도들이 더 나와야 한다.

TT: 最近韩美制药成功出口5万亿韩元的糖尿病治疗药. 现代汽车也树立了高端品牌战略. 韩国需要更多这样的事例.

(최근 한미약품이 5조원대 당뇨병 치료제 수출을 성사시켰으며, 현대자동차도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시도들이 더 필요하다) (조선일보 2015.11.9)

예문(10)과 (11)에서 ST는 모두 ‘-어야 한다’의 당위진술 요청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TT에서 ‘值得(-할 가치/필요가 있다)’와 ‘需要(필요하다)’로 번역되며 요청의 직접성이 약화되었다.

또 다른 유형으로 ST의 제안진술이 TT에서 조건문의 약한 암시로 변경되면서 직접성의 강도가 약해진 경우가 관찰되었다.

(12) ST: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같은 창업가 10만 명만 키우자. 한국 경제호의 재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다.

TT: 如果能够培养出10万像已故现代集团董事长郑周永一样的企业家, 韩国经济号就可以实现再次飞跃。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같은 창업가 10만 명을 키운다면, 한국 경제호는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 2015.3.12)

예문(12)에서 ST는 ‘키우자’의 제안 진술을 사용하였다. TT는 이를 ‘如果’를 사용한 조건문으로 번역하며 요청의 의미를 보다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ST와 TT 간 요청표현 유형에 변화가 생겼지만 무표적인 경우는 다음 한 가지가 관찰되었다.

- (13) ST: 좌절감을 안겨준 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자리보전을 위해 탈당 소동을 벌였던 것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우선 박 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답게 국회를 정상화함으로써 자신이 말한 환골탈태 실천을 입증하기 바란다.
- TT: 朴泳善应该阐明给其带来挫折感的政党问题到底是什么, 并提出解决这种问题的方案, 并对各界提出的为了保住职位才会发动这场脱党骚乱的质疑做出解释, 并努力将国会带入正常轨道, 做好有责任感的政党院内代表, 用事实证明自己所说的“脱胎换骨的实践行为”。
 (박영선 의원은 좌절감을 안겨준 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자리보전을 위해 탈당 소동을 벌였던 것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답게 국회를 정상화하고 자신이 말한 환골탈태 실천을 입증해야 한다) (동아일보 2014.9.18)

예문(13)에서 ST는 ‘박영선 위원장이 환골탈태 실천을 입증하기 바란다’의 소망진술을 사용하였다. 이는 TT에서 당위진술 ‘应该(-해야 한다)’로 번역되었다. 요청표현의 유형은 다르나 소망진술과 당위진술 모두 직접성이 약한 범주에 속하는 표현으로 직접성 강도 변화는 무표적이라 할 수 있다.

4.3. 논의

제목 요청표현 번역은 ST와 TT 간 직접성 변화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직접성이 강하게 변한 경우와 약하게 변한 경우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문 사설 한영 번역을 분석한 신진원(2014)은 사설 제목 요청표현 한영 번역 시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변이된 경우가 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약한 쪽으로 변이된 경우가 21%, 변화가 없는 경우가 19%, 무표적인 경우가 9%인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와 신진원(2014)은 모두 국내 언론사 신문사설 번역을 각 100개와 60개씩 임의 추출하여 분석하였는데, 요청표현 번역 경향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모두 간접적인 요청표현보다 직접적인 요청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김정은 2006: 180-181), 이러한 유사점으로 인해 한중 번역에서 한영 번역보다 직접성의 변이가 더 적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문 요청표현 번역 역시 제목 번역과 마찬가지로 ST와 TT 간 직접성 변화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문에서 직접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전체 변이 중 87.3%로, 제목 번역(60%)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p\text{-value} = 5.398190e-06$ ($p < 0.05$, $G^2 = 20.69055$, $d.f.=1$)). 즉, 제목에서 번역자의 개입이 더 활발히 나타난 것이다. 이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전달하며 독자의 주목을 끄는 신문 사설 제목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진원(2014)은 신문 사설 요청표현 한영 번역 분석에서 제목 번역에서 번역자 개입이 더 많은 결과를 얻었는데, 한중 번역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본문 요청표현 번역은 제목 번역과 달리 미미하지만 직접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와 중국어 간 요청표현 대조 연구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최수진(2008)은 한국어가 ‘-하세요, 주세요’ 등 ‘서법에 의한 도출’ 등 직접성이 강한 표현을 중국어보다 더 사용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설문조사 연구는 구어 중심 연구로 신문 사설 요청표현 관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신문사설에서 한국어가 요청표현을 중국어보다 직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나, 한국어와 중국어 신문사설의 요청표현 직접성에 큰 차이가 없다면, 본 연구의 번역 변이 결과는 번역 시 전달하는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명료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신문 사설 한중 번역을 분석하여 전달 태도 및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청표현 번역 시 두드러지는 양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시 신문 사설 제목은 정보를 요약 전달하고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요청표현이 본문과 다르므로, 제목과 본문을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목과 본문 요청표현 번역 모두 ST와 TT의 직접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본문에서 직접성 변화가 없는 경우가 제목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한중 번역에서도 신문 사설 제목의 특성 상 제목에서 번역자의 개입이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목 요청표현 번역은 직접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기타 변이 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국내 신문사설을 대상으로 요청표현의 한영 번역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한영 번역은 요청표현이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변이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모두 간접적인 요청표현보다 직접적인 요청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중 번역이 한영 번역에 비해 ST 요청표현의 직접성이 TT에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문 요청표현 번역은 미미하지만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변이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중국어 신문사설 요청표현 관습을 반영한 것일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전달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명료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향후 한국어와 중국어 신문 사설 요청표현의 장르적 관습 차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번역 변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변이 유형을 보면, 제목과 본문 번역 모두 암시적 표현이 당위진술로 변경되며 직접성이 강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제목에서는 명령법이 당위진술이나 암시적 표현으로 변화되며 직접성의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관찰되었으며, 본문에서는 주로 당위진술과 암시적 표현 간 변경이 일어나며 직접성에 변화가 생겼다.

향후 분석 텍스트를 늘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한중 번역 요청표현 직접성 변이 경향이 유지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한 번역에서도 동일한 특성이 관찰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서로 상반된 성격의 주제를 다룬 사실의 요청표현 번역을 비교하는 등 기타 변인에 따른 요청표현 번역 경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진 (1999) 「한국과 미국의 신문사설 텍스트 비교: ‘근거성’ 표현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7(1): 119-150.
- 김정은 (2006) 「한국어와 중국어의 요청표현 대조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41): 173-192.
- 김현아 (2011)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 의 번역 및 비번역 텍스트의 텍스트 공손성 분석」, 『통번역학연구』 15(1): 221-249.
- 김혜영 (2012) 「번역 기사문의 다시쓰기 양상 연구」, 『작문연구』 14(-): 67-106.
- 박미준 (2015) 「‘참여(engagement)’표지의 영한 번역 연구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피니언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2): 183-202.
- 신진원 (2012) 「설득적 텍스트의 헤지 표현(hedging) 번역문제」, 『번역학연구』 13(2): 113-138.
- 신진원 (2014) 「신문사설 한영번역에서의 태도전환양상」, 『번역학연구』 15(2): 95-121.
- 이종철 (2005) 「신문 사설의 요청 화행 표현의 양상 연구」, 『국어교육』 116(단일호): 221-255.
- 장석진 (1987) 『오스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여훈 (2006) 「신문 제목의 유형 및 그 실현 양상」, 『사회언어학』 14(1): 85-113.
- 최수진 (2008) 「한국어와 중국어의 요청화행 대조 분석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10: 160-186.
- Blum-Kulka, S., House, J., & Kasper, G. (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 Gao, H. (2009) 'Features of request strategies in Chinese',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7: 73-86.
- Hinds, J. (2001) 'Reader versus writer responsibility: A new typology', in T. Silva & P. K. Matsuda (eds) *Landmark essays on ESL writing*, N.J. : Hermagoras Press, 63-74.
- Thompson, G. (2001) 'Interaction in academic writing: Learning to argue with the reader', *Applied linguistics* 22(1): 58-78.
- 姚舜霞, 邱天河. (2003) '英汉请求言语行为策略类型对比初探', *平顶山师专学报* 18(3): 73-76.

[Abstract]

**An Analysis of request expressions shifts in
Korean-Chinese newspaper editorial translation**

Kim, Hae Rh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request expressions shifts in Korean-Chinese newspaper editorial translation. For this study, 100 Korean newspaper editorial texts and their Chinese translations are analysed under an analysis framework given by Blum-Kulka et al.(1989). The analysis was performed separately for the title and body of newspaper editorials.

According to the analysis, most request expressions in title and body translation did not show difference in directness of ST and TT. The request expressions in body translation showed the tendency toward strong directness while those in title translation did not show the apparent tendency that directness became strong or weak.

Majority of translation shifts was strong hints that shifted to obligation statements both in the title translation and body translation. Meanwhile, mood derivables shifted to obligation statements or strong hints in title translation, causing shifts in directness.

Further analysis may be required to confirm whether the trends hold true in larger samples, and to find out what factors contribute to the tendencies.

▶ Key Words: request expression, persuasive text, newspaper editorial translation, Korean-Chinese translation

김혜림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opal1007@hanmail.net

관심분야: 코퍼스 번역학, 담화분석, 통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7년 9월 3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0일